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2월 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7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2. 7.(목)	담당부서	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이원주 과장(044-203-4210)	담 당 자	한종호 사무관(044-203-4212) 박환준 사무관(044-203-4216)

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위해 산업부와 경제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.

- 산업부 장관, 민간·국책 경제연구원장 간담회 개최 -

▷ 견고한 제조 기반과 혁신 역량 바탕으로, 제조업 재도약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**'19.2.7.(목) 15시, 대한상공회의소**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「**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**」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**3개 국책 경제연구기관**과 **5개 민간경제연구소**의 연구원장이 참여했다.

【 주요 경제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요】

- **일시** : '19. 2. 7(목) 15:00~16:20
- **장소** : 대한상공회의소(1F) Executive Conference Room
- **참석**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주재), 산업정책실장, 산업정책국장, 산업연구원장,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, 에너지경제연구원장, 현대경제연구원장, 삼성경제연구소장, LG경제연구원장, 포스코경영연구원장, SK경영경제연구소장
- **발제** : ① 대외경제 리스크 분석 (대외경제정책연구원)
  ② 제조업 대응방향 및 산업정책 역할 (산업연구원)

○ 산업부는 자동차, 조선 등 **주력산업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**가 커지고,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,

- 우리 경제의 싱크탱크인 경제연구기관과 함께 **대외 경제적인 위험을 분석**하고,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**산업정책의 역할**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.

□ **성윤모 장관**은 "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은 미-중 무역분쟁, 글로벌 경기 둔화, 국제 유가 하락 등 **대외요인이 작용한 측면**이 크지만, 그간 우리 제조업이 **양적 성장에 치중하여** 상대적으로 **질적 고도화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**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."라고 평가하고,

○ "정부도 **제조업 상황을 엄중히 보고** 있지만, **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.**"라고 강조하고,

- "우리는 제품목록(포트폴리오), 생산구조 측면에서 **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을 보유**하고 있고, **혁신 역량도 우수**한 만큼, 우리의 **강점과 잠재력을 바탕**으로 **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 개선에 매진**하자."**라**고 당부했다.

○ 한편, 성윤모 장관은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**2월 중에**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**수출활력 제고방안**」을 마련하고,

- 민간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발굴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는 「**민관 합동 투자지원단**」을 **2월 중순에 출범**시킬 것이라고 밝혔다.

- 이와 함께,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「**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**」은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,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「**상생형 일자리 지원시스템**」을 **마련** 중이고,

- 「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**」을 4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, **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**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.

○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민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**우리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변화를 위해 노력**해야 하고,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한 **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**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.

□ 이 날 간담회에서 **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**과 **장지상 산업연구원장**은 각각 △**우리 경제의 대외 위험 분석**, △**제조업 대응방향과 산업정책 역할**에 대해 발표했으며,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.

○ 이재영 원장은 올해도 세계 경제가 3.5% 성장하면서, **경기회복세가 둔화**할 것으로 전망하면서, **미-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**, **국제 통화긴축 기조**, **신흥국 금융 불안** 등 대외경제 위험 요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.

- 아울러, 통상 분쟁 확산에 대응하여 △**신남방, 신북방 정책을 활용한 수출시장 다변화**, △**미-중 통상분쟁의 기회요인 활용**, △**미국 제232조 조사결과**에 대비한 **대응 전략 수립**, △**세계무역기구(WTO) 개혁 작업 동참**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.

○ **장지상 원장**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전환(**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**) 등 **대세에 대응**하고, 국**제 가치사슬**에서 우리산업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,

- 이를 위한 전략으로 △**고부가 분야로의 제품목록(포트폴리오) 전환**, △**소재·부품 기반의 전략적 강화**, △**스마트공장과 장비산업 육성 연계**, △**신산업의 국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생태계 강화**, △**제조 연관 서비스의 발전**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.

○ **성윤모 장관**은 이에 대해 **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**하고, 세부 전략 마련을 위해 산업부와 민간·국책 경제연구원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.

□ 이날 성윤모 장관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**정책 논의의 장을 개최**하기로 했으며, 주력산업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, 산업동향 및 구조변화 모니터링 등 **산업 구조 분석과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협력**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한종호 사무관(☎ 044-203-4212), 박환준 사무관(044-203-42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주요 경제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요

□ **일시** : '19.2.7(목) 15:00~16:25

□ **장소** : 서울, 대한상공회의소(1F) Executive Conference Room

□ **참석자** (총 13명)

○ **(산업부)** 장관(주재), 산업정책실장, 산업정책국장,
산업정책과장, 통상정책총괄과장

○ **(국책 연구기관)** 산업연구원(KIET) 장지상 원장
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 이재영 원장
에너지경제연구원(KEEI) 조용성 원장

○ **(민간 연구소)** 삼성경제연구소 차문중 소장
현대경제연구원 이동근 원장
LG경제연구원 김영민 원장
포스코경영연구원 장윤종 원장
SK경영경제연구소 염용섭 소장

□ **진행순서**

시 간	내 용
15:00~15:05 (5')	참석자 도착 및 사진촬영
15:05~15:10 (5')	장관님 인사말씀
15:10~15:20 (10')	발제 1 : 대외경제 리스크 분석(대외경제정책연구원)
15:20~15:30 (10')	발제 2 : 제조업 대응 방향 및 산업정책 역할(산업연구원)
15:30~16:20 (50')	토 론
16:20~16:25 (5')	마무리 말씀